국내
마감시황

2025.8.26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한·미 정상회담 소화하며 혼조세

외국인·기관, 코스피 동반 순매도
바이오·화학주 강세, 조선·원전주 약세

주요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3,179.36pt (-0.95%)	801.66pt (+0.46%)	429.41pt (-1.03%)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396.90 원 (+6.6 원)	2.8540% (+0.2bp)	6,447.50pt (-0.12%)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억)	KOSDAQ (억)	KOSPI200 선물 (억)
개인	+8,491 억	-1,170 억	-614 억
외국인	-6,859 억	+1,610 억	-2,907 억
기관	-2,646 억	-323 억	+3,098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은 투자자들이 예상한 수준으로 무난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양국은 반도체, 조선, 원전 분야에서 협업하기로 발표했으나, 이벤트 소멸로 인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관련주가 하락했습니다. 또한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쿡 이사를 즉시 해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美 주가지수 선물이 하락했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에도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한편, 전날에 이어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의 반등이 지속되며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KOSPI는 0.95% 내렸고, KOSDAQ은 0.46% 올랐습니다.
-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KOSPI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제약과 보험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부품과 전기·전자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KOSPI에서 오락·담배와 음식료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부품과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K-투어리즘 로드쇼의 흥행 소식에 엔터주가 올랐습니다. 정부-석유화학 기업간의 사업 재편 협약 이후 화학주는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밖에 바이오, 게임주가 올랐습니다. 반면, 자동차, 금융주가 내렸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대한유화(+11.91%), 에이비엘바이오(+6.31%), 크래프톤(+2.27%)이 올랐고, 한화오션(-6.18%), 두산에너빌리티(-3.95%), 삼성전자(-1.68%)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